

<p>○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지난 번에 禹元植委員님께서 水産物의 여러 가지 問題點에 대해서 質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水産物에 대해서 資料를 準備했습니다. 그 資料에 앞서서 저희 市場의 實態를 잠깐 먼저 說明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사실 지금 商人間에 첨예한 利害關係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두 달 전에 當 公社에 就任해서 同 問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指摘하신 仲都賣人하고, 仲販하고, 소위 날마리상과의 연결고리와 直販商人과의 商權다툼이 비단 水産物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분야도 유사한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靑果分野는 物量과 品目이 많고, 取扱商人도多數인데다가 販賣場所가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 있으므로 現場에서의 격들은 적은 반면, 水産物은 過去 直販商人들을 위하여 靑果와 마찬가지로 直販場을 별도로 水産物 販賣에 적합하게 建設을 해서 商行爲를하도록 하였으나 直販商人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였고, 심지어는 당시 平民黨 黨술에까지 물려가서 한 달 간이나 黨술을 접거하고 농성을 벌인 끝에 결국은 仲都賣인이 競賣를 하는 都賣區域內에서 小賣行爲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水産物 直販商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商街는 결국 靑果 直販商들에게 配分해 주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p> <p>그러면 왜 水産分野는 都賣商과 小賣商이 함께 장사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水産物의 商品 特性上 輸送車輛에서 한 번 荷役한 다음에 계속 이를 上·下車를 통하여 이동을 한다면 運搬費가 追加가 되고, 商品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며, 消費者들도 많은 物量이 함께 모여 있고 풍부한 구색이 갖추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市場의 生理上 都賣商과 小賣商이 싸움을 하면서도, 마치 사이나쁜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도 자식 낳고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不可分의 關係를 지금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p> <p>그래서 現 體制下에서 相當物量의 蒐集은 사실상 仲都賣인이 產地別로 이미 競賣가 되어서 價格이 決定된 商品을 단지 서울로 끌</p>	<p>어올려서 農安法上의 強制 全量 上場競賣라는 原則 때문에 都賣法人을 통하여 재차 競賣를 거친 후 分散을 시키고 있는데 物量面에서 보면 仲都賣인이 직접 他 小賣商에게 販賣하는 量이 30% 내지 40%이고, 仲都賣인이 仲販을 거쳐 날마리상까지 연결돼서 하는 그 고리에서 販賣되는 量이 전체 한 60%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直販商人들이 販賣하는 量이 全體 分散되는 量의 5% 내지 10%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市場 流通의 대혼란이 없이 정상적인 都賣行爲와 小賣行爲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3 내지 5個年 정도의 都·小賣·分離計劃을 먼저 세우고, 사전에 關係商人들과 저희 公社와, 또는 學界와 함께 모여서 충분한 協議와 檢討를 통해서 보다 長期的이고 相互 發展的인 對策을 樹立해야 될 줄 믿습니다.</p> <p>그래서 당장 코앞의 相互 利益을 위해서 극렬하게 대립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못 내리는 것이고 인내심을 갖고 계획성 있게 過去의 矛盾點을 하나씩 바로 잡을 때 우리 流通의 秩序는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p> <p>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流通如水라는 말이 있듯이 流通은 마치 물 흐르는 것과 같이 過去 溪谷을 거쳐 구비 구비 흘러오는 그 理由가 다 있고, 앞으로 바르고 빨리 흐르기 위해서는 똑바른 水路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p> <p>이상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參考資料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p> <p>.....</p> <p>(報告) 水産市場 運營實態 및 改善對策</p> <p>1. 現 況 □水産部類 商人現況</p>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단위:명)

	계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계	835	396	58	381
중도매인	411	125	41	245
직판상인	424	271	17	136

□施設使用 現況

○競賣場 施設

(단위:평)

	계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소계	경매장	직판점포	소계	경매장	직판점포	경매장
시설면적	3,000	1,400	858	542	600	565	35	1,000

○仲都賣人 店鋪

(단위:개)

	계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점포수	264	80	29	155

※서울건해 중도매인 점포는 건어 제2경매장 점포 49개 포함.

□商人 收容實態

- 중도매인은 점포부족으로 대부분 2인 1점포 사용, 점포 협소
 - 점포당 평균면적 6평, 1인당 평균사용면적 3.6평
- 직판상인은 별도 수용시설이 없어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통로 수용
 - 선어, 패류 직판상인(288명): 경매장에서 직판 영업(2평)
 - 건어 직판상인(136명): 중도매인 점포

통로에서 직판영업(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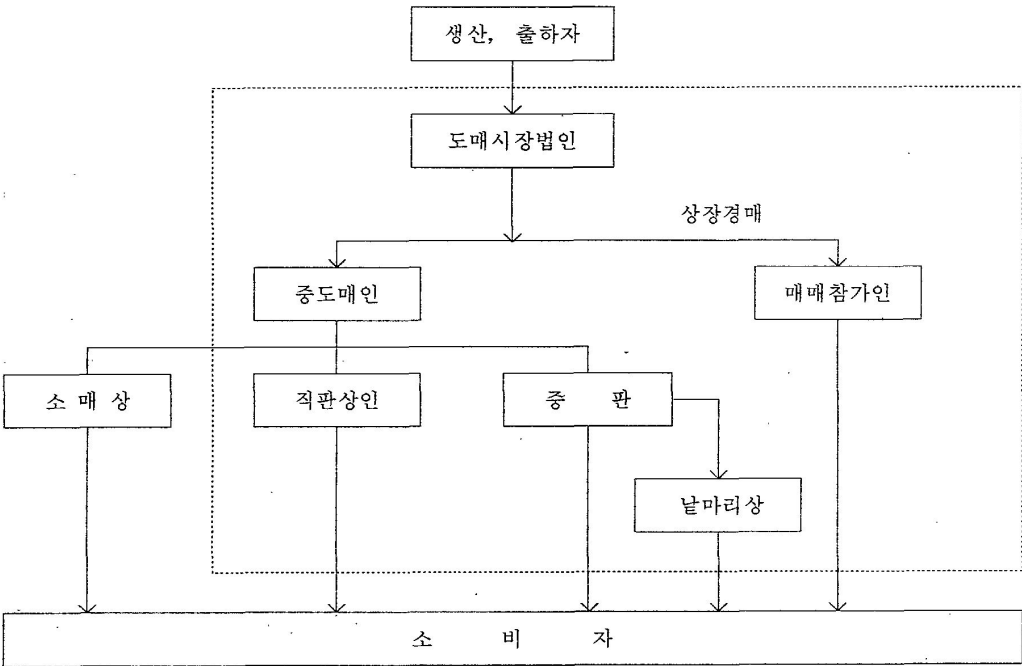
- ※수산직판상인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 통로 배치 경위
 - '95.8월 개장당시 구 용산시장 상인의 전면 이전입주
 - '88.5월 직판시장을 신축, 청과 직판상인을 이전 수용
 - 수산직판상인은 시설부족 및 영업여건 불리주장으로 현위치 배치

□營業實態

○'95 法人別 去來實績('95.10.31 현재)

	계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계	선어	패류	계	선어	패류	건어
물량(톤)	155,237	91,235	46,108	45,127	32,592	9,390	23,202	31,410
금액(백만원)	329,368	155,959	74,160	81,799	47,995	16,253	31,742	125,414

4 (1995年度行監—生活環境)

<p>○水産部類 去來實態—'95.7.1 부터 전량 상장매매</p> <p>—총 거래품목 : 102개 품목(선어 46, 패류 43, 건어 13)</p> <p>—경매거래품목 : 49개 품목(선어 33, 패류 10, 건어 6)</p> <p>※경매율 : 선어 97%, 패류 49%, 건</p>	<p>어 96%</p> <p>—競賣時間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충선어 : 01:00—02:00 • 패 류 : 01:30—02:00 • 건 어 류 : 06:00—07:30 • 냉동선어 : 01:30—02:30 • 활 어 : 04:00—05:00
<p>○水産部類 物量分散 體系</p>  <pre> graph TD A[생산, 출하자] --> B[도매시장법인] B --> C[상장경매] B --> D[매매참가인] C --> E[중도매인] C --> F[직판상인] C --> G[중 판] E --> H[소매상] E --> F G --> I[날마리상] D --> I H --> J[소비자] F --> J I --> J </pre>	
<p>○商人別 營業實態</p> <p>—중도매인 : 법인 상장물량을 경매낙찰 받아 직판상인, 중판 및 외부 거래처 분산(주영업시 간대 : 24:00—06:00)</p> <p>—직판상인 : 중도매인으로부터 물량을 구 입하여 경매장내 또는 중도 매인 점포통로 좌판(2평)에 서 소매영업(주영업시간대 : 06:00—18:00)</p> <p>—중 판 : 중도매인과 연계된 하매인으로 로서 중도매인 물량을 넘겨 받아 경매장 등에서 도·소 매 영업(260여 명)</p>	<p>(주영업시간대 : 04:00—10:00)</p> <p>—날마리상 : 반업장 턱밑 또는 가설물 주변에서 생계형 소매영업 (120여 명)</p> <p>(주영업시간대 : 10:00—18:00)</p> <p>2. 問題點 및 改善對策</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문 제 점	개 선 대 책
<p>○도·소매기능 혼재로 법인, 중도매인과 직판상인간 갈등 -중도매인의 도·소매영업 병행으로 직판상인 상대적 피해의식</p> <p>○중판은 중도매인과 연계되어 실질적 물량분산을 담당하고 있어 일제정리 곤란</p> <p>○날마리상은 일일 생계와 직결되어 단속시 일시잠적 하였다가 다시 재발하는 등 단속과 재발 반복</p>	<p>□단기대책 : 직판상인 수 억제 및 타 업종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판상인 중 분산능력 우수한자 중도매인화 및 타업종 희망자 업종 전환 유도 ○임대계약 해지자 발생시 신규 층원 억제 ○중도매인 도매거래시간대 이후 영업 자제 유도 <p>□장기대책 : 도·소매구역 공간적 분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매상인 별도 수용시설 마련하여 이전 -도로망 및 지하철역과 연계 역세상권 조성 등 ○도매구역내 소매행위 금지 및 출입제한 조치 <p>□중판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매인과 연계된 중판 명단확보 및 관리로 점진적 중판역할 축소 -분산 능력있는 중판을 중도매인으로 영입 -중도매인 법인화, 대형화 유도로 분산체계 개선하여 중판 역할축소 <p>□날마리상 대책 : 단계적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영업시간대 청원경찰 인력 집중 투입하여 영업용기 등 영치 및 위규자 파출소에 고발 조치 실질적 단속 실시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에 반발 노점상 연합회와 연계하여 집단 행동시 경찰과 합동으로 주동자 고발 및 현장 정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 고정배치로 재발 방지
<p>이상 水産物市場의 운영실태 및 改善對策에 대해서 報告를 올렸습니다.</p> <p>○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있으십니까? 閔泳三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閔泳三委員 閔泳三委員입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를 讀 살펴보면 第3條第2項의1號에 보면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出荷者 및 仲都賣人에게 각각 委託上</p>